

식품가격 이면의 사실들



날씨

가뭄과 홍수, 한파로 인해 공급이 감소하면 필수 농작물의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지난 50여 년 이래 최악의 2012년 미국 가뭄으로 옥수수, 대두 등의 주요 곡물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로 이들 상품의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글로벌 수요

중국과 인도의 중산층이 늘어나면 쇠고기와 곡물의 수요 또한 증가하게 된다. 2040년쯤 세계 인구가 9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점차 늘어나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려면 2030년까지 식품 생산량이 UN 추정 50퍼센트 증가해야 한다.



바이오연료 정책

미 정부의 바이오연료 사용 의무화로 인해 옥수수 전체 수확량의 40.6%에 해당하는 50억 부셀이 에탄올 생산에 사용되어 다른 용도로의 공급이 15년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한정적인 경작지

개발 등의 요인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경작지가 사라지고 있다. 그와 동시에 비식품 재배 용도로 전용된 농지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가격이 오르고 있다.



거시경제요인

유로 및 기타 통화 대비 미국달러의 강세는 모든 상품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유럽의 경제 위기상황과 중국의 성장 둔화가 2012년 상품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정부정책

자국 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 등 각국의 정부정책으로 인해 경쟁이 위축되고 국제교역을 위한 식품 공급량이 감소하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한 예로 러시아가 소맥수출 금지 조치를 취함에 따라 2010/11년 전세계 공급량이 1,500만톤 감소하였다.



질병

질병 및 감염으로 인해 곡물 생산량과 가축 개체수가 줄어들면 식품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 평균적으로 전세계 곡물 생산의 약 35%가 질병과 감염의 피해를 입고 있다.



에너지가격

고유가로 인해 식품의 유통비용이 상승하며 이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지정학적 분쟁

정치적 소요사태는 곡물 생산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급 및 상품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주요 소맥 수입국인 이집트에서 2012년에 발생한 시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소맥 가격이 급등했다.



곡물 저장량 감소

곡물의 비축/사용 비율은 2012년에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세계 곡물재고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늘어나고 있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욱 많은 곡물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다.